

※ 배포 즉시 보도 가능하며,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검찰  
PROSECUTION SERVICE

# 대검찰청

대변인실 전화 02-3480-2100 / 팩스 02-3480-2704

## 보도자료

2025. 2. 25.

자료문의 : 대검 형사선임연구관실

전화번호 : 02-3480-3425

주책임자 : 형사선임연구관

### 제목

## '25년 1월 형사부 우수 수사사례 선정

● 대검찰청은 '25년 1월 전국에서 처리한 형사사건 중 4건을 『국민을 섬기는 검찰』 상을 구현한 우수 수사사례로 선정하고, 형사부 본연의 임무인 신속하고 충실한 송치사건 처리를 묵묵히 수행한 우수 검사 3명을 선정하였음 (\* 상세 내용 별첨)

① 임대사업자 1명이 피해자 2명을 상대로 4억원을 편취한 전세사기 사건을 송치받아 기록 검토 중 조직적으로 범행이 기획된 정황을 발견하여, 19개 계좌의 거래내역을 분석하고 공범을 포함한 다수의 관련자를 조사하는 등 적극 보완수사함으로써, 전세사기 조직이 피해자 58명을 상대로 합계 174억원의 전세사기 피해를 야기한 사실을 규명해, 총책을 범죄집단조직죄, 사기죄 등으로 직접 구속하고 공범 4명을 함께 기소한 사례 [춘천지검]

② 치과의사 4명과 직원 2명이 공모하여 10년간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면서 보험급여 17억원을 편취한 의료법위반 등 사건에서, 검찰은 적극적 보완수사를 통해 간호조무사 A가 단순 가담자가 아닌 사무장병원 운영자임을 밝혀 직접 구속하고, A의 무면허 의료행위 및 실업급여 부정수급 등 여죄를 추가로 밝히는 등 장기간 조직적으로 이뤄진 범행의 전모를 규명하여 엄단한 사례 [원주지청]

③ 대출금 3,500만원 미변제로 금융기관이 채무자 1명을 고소한 사기 사건을 송치받아 기록을 검토하던 중, 채무자인 피의자가 회사에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근로계약을 가장하여 대출받은 정황과 이를 알선한 '브로커의 존재'를 포착함에 따라, 65개 계좌의 거래내역 및 67건의 대출 서류를 확보하여 분석하는 등 철저히 보완수사함으로써, 7억원 상당의 '직업대출' 브로커 2명을 직접 구속하여 기소하고, 그 외 공범 3명을 추가로 입건하여 함께 기소한 사례 [안산지청]

④ 20대 부부가 지적장애인을 1년간 상습폭행하고, 강제로 배달 노역을 시킨 후 임금을 모두 갈취한 사건에서, 현장검증, 계좌거래 내역 분석 등 직접 보완수사하여 추가 범행을 밝혀 남편을 직접 구속한 후 부부를 기소하고, 범죄피해자지원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피해자 보호지원에도 만전을 기한 사례 [전주지검]

⑤ [부산지검 김병채 검사] 기록이 방대한 서민다중피해 사건들을 송치받아 다수의 사건관계인들의 진술을 청취하면서 자료 수집도 철저히 하는 등 적극적으로 보완수사하고, 보완수사 요구, 이송, 재배당 등으로 수사가 지연되는 등 장기화된 사건들을 재배당받아 신속히 직접 보완수사하여 종국처분하는 등 형사부 본연의 임무를 다함

⑥ [남양주지청 이동현 검사] 사건부담량이 과중함에도 재배당받은 1년 초과 미제 10건 등 다수의 장기미제들을 처리하고, 권리관계가 복잡하고 첨예하게 다투어져 장기화된 다수의 사건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사건관계인들의 진술을 청취하고 관련 자료를 철저히 검토하여 송치의견과 달리 처분하거나 종국처분하는 등 정성스럽게 사건을 처리함

⑦ [천안지청 장민수 검사] 많은 수의 소환조사로 쟁점을 정리하여 송치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면서 재배당받은 장기미제들도 충실히 처리하고, 꼼꼼한 기록 검토를 통해 범인이 특정되지 않았거나 밝혀지지 아니한 주범이 있다고 의심되는 정황이 있는 경우 다수의 사건관계인들의 의견을 청취해 사건을 해결하는 등 실체를 규명하려는 노력을 다함

순 번	소 속	우수 수사사례
	부 장	
	주임검사	
1	춘천지검 형사제2부	<p><b>[직접수사, 민생침해사범 엄단]</b> 임대사업자 1명이 피해자 2명을 상대로 4억원을 편취한 전세사기 사건을 송치받아 기록 검토 중 조직적으로 범행이 기획된 정황을 발견하여, 19개 계좌의 거래내역을 분석하고 공범을 포함한 다수의 관련자를 조사하는 등 적극 보완수사함으로써, 전세사기 조직이 피해자 58명을 상대로 합계 174억원의 전세사기 피해를 야기한 사실을 규명해, 총책을 범죄집단조직죄, 사기죄 등으로 직접 구속하고 공범 4명을 함께 기소한 사례</p> <p><b>사안 개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① (A, B, C, D, E) '21. 4. ~ '22. 7. 피해자 17명을 기망하여 합계 임대차 보증금 46억원 편취 / ② (A, D, E) '21. 9. ~ '22. 11. 피해자 39명을 기망하여 124억원 편취 / ③ (A, C) '21. 3. ~ 4. 피해자 2명을 기망하여 임대차보증금 합계 4억원 편취 [사기]</li> <li>○ (A) '21. 2. ~ '22. 11. A는 전세사기 관련 범죄집단을 조직·활동, (B, C, D, E) 위 범죄집단에 가입·활동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li> </ul>
	홍승현(35)	<p><b>선정 이유</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임검사가 피해액 4억원 상당의 전세사기 송치사건을 배당 받아 기록 검토 중,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의 사기 행각이 조직적으로 자행되었음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다수 발견</li> <li>- 타청에서 보완수사요구 등으로 장기화된 사건을 이송받고, 피해자 58명을 포함한 관련자 68명을 조사하면서 관련 계좌 19개를 종합 분석하는 등 직접 보완수사</li> </ul>
	박병훈(변11) ※ 現 목포지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 결과, 주범이 다수의 '마지' 임대사업자를 관리하면서 수익을 취득한 사실, 피해자 17명에 대한 피해액 46억원 상당의 여죄를 밝혔고,</li> <li>- 전세사기를 목적으로 한 범죄집단이 합계 147억원 가량의 피해를 야기한 사건의 전모를 규명한 후, 주범을 범죄집단조직, 활동, 사기죄로 직접 구속하고, 공범 4명을 함께 기소하여 민생 침해사범에 적극 대처</li> </ul>

순 번	소 속	우수 수사사례
	부 장	
	주임검사	
2	원주지청 형사제2부	<p><b>【정성저리, 실제 진실 규명】</b> 치과의사 4명과 직원 2명이 공모하여 10년간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면서 보험급여 약 17억을 편취한 의료법위반 등 사건에서, 검찰은 적극적 보완수사를 통해 간호조무사 A가 단순 가담자가 아닌 사무장병원 운영자임을 밝혀 직접 구속하고, A의 무면허 의료 행위 및 실업급여 부정수급 등 여죄를 추가로 밝히는 등 장기간 조직적으로 이뤄진 범행의 전모를 규명하여 엄단한 사례</p> <p><b>사안 개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 등 7명) '14. 5. ~ '24. 9.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고 위 사실을 숨긴 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의료급여 17억원 상당 편취 [의료법위반, 특경법위반(사기)]</li> <li>○ (A) '22. 12. ~ '23. 7. 치과에서 근무 중인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 1,440만원 부정수급, '22. 4. 및 '23. 7. 환자에게 충치치료 등 무면허 의료행위 [고용보험법위반, 의료법위반]</li> </ul>
	류주태(37기)	<p><b>선정 이유</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로 사무장병원 운영 범행의 전모를 규명하고 숨겨진 주범을 직접 구속하여 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찰은 간호조무사 A를 범행의 단순 가담자로 송치하였으나, 검찰은 계좌내역 분석,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A가 다수의 제3자 명의 계좌를 이용해 범죄수익금을 취득하는 등의 수법으로 병원을 실제 운영한 주범임을 밝혀 직접 구속</li> <li>- A를 구속한 후 추가 수사를 통해 A의 무면허 의료행위 및 실업급여 부정수급 여죄를 밝혔으며 가담자 간 말뚱추기로 수사망을 회피한 공범 1명을 추가 입건하는 등 공모관계를 명확히 규명하여 관련자 7명 전원 기소</li> </ul> </li> <li>○ 실업급여 환수 등을 통해 사회보험 재정 안정성 제고에 기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가 부정수급한 실업급여를 고용노동부에 전액 반환하도록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수사결과를 통보하여 요양급여가 환수될 수 있도록 조치</li> </ul> </li> </ul>
	양정훈(변7)	

순 번	소 속	우수 수사사례
	부 장	
	주임검사	
3	안산지청 형사제3부	<p><b>[직접수사, 금융질서 저해사범 엄단]</b> 대출금 3,500만원 미변제로 금융기관이 채무자 1명을 고소한 사기 사건을 송치받아 기록을 검토하던 중, 채무자인 피의자가 회사에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근로계약을 가장하여 대출 받은 정황과 이를 알선한 '브로커'의 존재를 포착함에 따라, 65개 계좌의 거래내역 및 67건의 대출서류를 확보하여 분석하는 등 철저히 보완수사함으로써, 7억원 상당의 '작업대출' 브로커 2명을 직접 구속하여 기소하고, 그 외 공범 3명을 추가로 입건하여 함께 기소한 사례</p> <p><b>사안 개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 B) '21. 1. ~ '22. 10. 대출의뢰자 14명이 마치 정상적으로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가장한 후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총 36회에 걸쳐 24개 금융기관으로부터 7억 1,590만원의 대출금을 편취 [사기]</li> <li>○ (C) '21. 5. ~ 6. A, B에게 대출의뢰자를 소개하여 위와 같은 수법의 7,400만원 상당의 '작업대출' 편취 범행을 용이하게 함 [사기방조]</li> <li>○ (D) A, B와 공모하여 '21. 4. '작업대출'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4,400만원의 대출금을 편취하고, '22. 6. ~ '23. 11. 총 55회에 걸쳐 합계 1억 3,420만 원의 상당의 신용카드거래를 가장하고 금원을 취득(속칭 '카드깡')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li> <li>○ (E) A, B와 공모하여 '21. 1. '작업대출'로 총 2회에 걸쳐 합계 4,500만 원의 대출금을 편취하고, '20. 12. PC방을 개업하고 손님들이 사설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도박하게 함 [사기, 도박장소개설]</li> </ul> <p><b>선정 이유</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찰이 금융기관 대출금 미변제로 송치한 단순 사기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작업대출 브로커'의 존재 정황을 포착한 후, 의심 계좌 65개의 거래내역 및 대출서류 67건을 분석하는 등 적극적으로 보완수사</li> <li>○ 보완수사 결과, 주범인 브로커 2명이 ▲ 노숙자 등 다수의 명의상 채무자를 확보하고 급여지급내역을 허위로 작성하여 근로계약의 존재를 가장하는 등 소위 '작업대출'로 다액을 대출 받고, ▲ 사업자금을 마련하고자 카드깡, 사행성 PC방 운영 등 불법을 자행한 사실을 규명하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범 2명을 인지, 직접 구속한 후 추가 입건한 공범 3명과 함께 기소하는 등 조직적인 대출사기 범행의 전모를 밝혀 금융질서 저해사범에 엄정히 대처</li> </ul> </li> </ul>
	임두환(37)	
	박원석(46) ※ 現 부산지검	

순 번	소 속	우수 수사사례
	부 장	
	주임검사	
4	전주지검 형사제1부	<p><b>【정성저리, 장애인 대상 범죄 엄단】 20대 부부가 지적장애인을 1년간 상습폭행하고, 강제로 배달 노역을 시킨 후 임금을 모두 갈취한 사건에서, 현장검증, 계좌거래 내역 분석 등 직접 보완수사하여 추가 범행을 밝혀 남편을 직접 구속한 후 부부를 기소하고, 범죄피해자지원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피해자 보호지원에도 만전을 기한 사례</b></p> <p><b>사안 개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 B) '20. 12. 우연히 만나 함께 살게 된 피해자를 폭행하고, '21. 2. 도망간 피해자를 강제로 데려와 피고인들의 집에서 함께 거주하면서, 1년간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피해자가 배달업체에서 배달일을 하면서 벌어들인 임금 약 3,000만원을 갈취 <b>[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 노동력착취약취]</b></li> <li>- '21. 4. 및 7. 전주시 소재 산 속 묘지 옆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공동하여 폭행 <b>[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b></li> <li>○ (A) '21. 1. ~ 11. 스텐봉, 호미 등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 <b>[특수폭행, 폭행]</b></li> <li>○ (B) '21. 1. ~ '22. 1. 가위, 헬멧 등으로 피해자를 때리거나 상해를 가하고, '21. 10. 피해자 명의로 지급된 기초생활수급비 300만원을 갈취 <b>[특수폭행, 상해, 공갈]</b></li> </ul> <p><b>선정 이유</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부인 피고인들이 혐의를 전부 부인하여 불구속 송치된 후 수 회 재배당 되는 등 수사가 지연된 장기미제 사건에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해자 조사를 통해 새로운 목격자들의 존재를 확인한 후 추가 진술증거를 확보하고, 검사가 직접 현장을 검증하는 등 피해 진술 신빙성 등에 대해 면밀한 보완수사 실시</li> <li>- 계좌 내역 분석을 통해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기초생활 수급비를 갈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공갈 및 특수폭행 등 추가 범행을 밝혀 남편인 피고인 A를 직접 구속하여 기소하고, 아내인 피고인 B는 불구속 기소함으로써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를 엄단</li> </ul> </li> <li>○ 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를 통해 피해자의 장애인 등록을 돕고,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손해배상청구 등 법률지원, 그 외에 심리 치료비·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까지 의뢰함으로써 장애인인 피해자를 위한 종합적·실효적 보호·지원 조치 실시</li> </ul>
	정보영(34)	
	조원하(변11) ※ 現 안동지청	

순 번	소 속	우수 수사사례
	부 장	
	주임검사	
5	부산지검 형사제1부	<p><b>【형사부 본연의 임무 충실】</b> 기록이 방대한 서민다중피해 사건들을 송치받아 다수의 사건관계인들의 진술을 청취하면서 자료 수집도 철저히 하는 등 적극적으로 보완수사하고, 보완수사요구, 이송, 재배당 등으로 수사가 지연되는 등 장기화된 사건들을 재배당받아 신속히 직접 보완수사하여 종국처분하는 등 형사부 본연의 임무를 다함</p>
	김상균(34)	<p><b>선정 이유</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산지검 김병채 검사는 24년 하반기 인사로 부서 전입하여 전세사기 등 서민다중피해 사건을 전담하면서 3개월 동안 재배당받은 1년 초과 장기미제 7건 등을 포함한 다수의 장기미제들을 처분하였음</li> </ul>
	김병채(4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① 기록이 방대한 전세사기 사건들을 신속히 검토하고 다수의 사건관계인들의 진술을 청취하면서 자료 수집도 철저히 하는 등 적극적으로 보완수사(송치 기록 15만쪽 상당, 검찰 생산 기록 3만쪽 상당)하는 한편, ② 보완수사요구, 재배당이 수차례 이뤄진 사건, 이의신청 송치 후 보완수사요구 등을 반복한 사건, 이송을 수 차례 반복한 사건 등 장기간 처리가 지연된 사건들을 재배당받아 신속히 직접 보완수사하여 종국처분하고, ③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10건의 사건들을 직접 보완수사하여 불기소 처분하는 등 형사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함</li> </ul>

순 번	소 속	우수 수사사례
	부 장	
	주임검사	
6	남양주지청 형사제1부	<p><b>【형사부 본연의 임무 충실】</b> 사건부담량이 과중함에도 재배당받은 1년 초과 미제 10건 등 다수의 장기미제들을 처리하고, 권리관계가 복잡하고 첨예하게 다투어져 장기화된 다수의 사건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사건관계인들의 진술을 청취하고 관련 자료를 철저히 검토하여 송치의견과 달리 처분하거나 종국처분하는 등 정성스럽게 사건을 처리함</p> <p><b>선정 이유</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양주지청 이동현 검사는 24년 하반기 인사로 공판검사에서 수사검사로 보직변경되어, 배당되는 사건량이 많고 저경력 검사 비율이 높은 청의 상황으로 사건부담량이 과중함에도, 많은 수의 사건을 재배당받아 3개월 동안 재배당받은 1년 초과 미제 10건을 포함한 다수의 장기미제들을 처분하였음</li> <li>○ 사건관계인들의 진술을 적극 청취하고 관련 자료들을 수집하여 철저히 법리 검토하는 등 충실한 보완수사를 통해, 불송치 후 이의신청 송치된 사건을 기소하거나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을 불기소하는 등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노력하고, 권리관계가 복잡하여 장기간 처리되지 못하고 수 회 재배당된 사건 다수를 종국처분하였음</li> </ul>
	정혁준(35)	
	이동현(변5)	

순 번	소 속	우수 수사사례
	부 장	
	주임검사	
7	천안지청 형사제1부	<p><b>【형사부 본연의 임무 충실】</b> 많은 수의 소환조사로 쟁점을 정리하여 송치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면서 재배당받은 장기미제들도 충실히 처리하고, 꼼꼼한 기록 검토를 통해 범인이 특정되지 않았거나 밝혀지지 아니한 주범이 있다고 의심되는 정황이 있는 경우 다수의 사건관계인들의 의견을 청취해 사건을 해결하는 등 실체를 규명하려는 노력을 다함</p> <p><b>선정 이유</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천안지청 장민수 검사는 매월 25명의 사건관계인들을 대면 조사하며 적극적으로 진술을 청취하여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려는 노력을 하면서, 배당받은 사건을 신속히 검토하여 처리하고, 재배당받은 장기미제들도 신속하고 충실히 처리하였음</li> <li>○ ① 집회 현장에서 불상의 피의자가 기습적으로 강제추행한 사건에서 적극적인 소재 추적으로 피의자를 특정하고, CCTV 영상 분석 및 구체적 피해진술 청취를 통해 기소한 사례, ② 미성년 6명이 공동으로 15세 피해자를 상해한 사건에서 사건관계인들에 대한 순차 면담, 디지털 증거 분석을 통해 미성년 6명을 배후에서 조종한 성년인 주범을 밝혀내 기소한 사례, ③ 교통사고 사건에서 음주운전 교통 사고 후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사실을 밝혀내 진범을 입건하여 기소한 사례 등 실체를 규명하려는 노력을 충실히 함</li> </ul>
	최형원(34)	
	장민수(48) ※ 現 대전지검	